

A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들:

❖ **하나님을 반영함 (빌 2:12-13)**

- 예수님의 겸비하심과 영광을 자세히 설명한 바울은 “그러므로”라는 말로 편지서를 이어갑니다. 다시 말해서,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“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므로” (빌 2:11), 빌립보 교인들, 더 나아가 우리 모두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.
-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“두려움과 떨림으로”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(빌 2:12). 그러나,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(딤후 2:11), 왜 우리가 구원을 걱정해야 할까요?
- (히브리 원어에서)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묘사했습니다 (시 2:11).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려는 동기를 주시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합니다 (빌 2:13).

❖ **세상의 빛 (빌 2:14-16)**

-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 덕목들을 이야기 합니다:
 - (1) 한 마음으로 연합함 (빌. 2:14):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서로 간에 험담, 비판, 경쟁, 다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.
 - (2) 흠 잡을 것 없이 삶 (빌. 2:15):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의 자세는 주변에 편만한 악과 방탕함과 크게 대조됩니다.
 - (3)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킴 (빌. 2:16):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
- 가장 캄캄한 곳에서 빛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. (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)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지우려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빛으로 밝게 빛나야 합니다.

❖ **살아있는 희생제물 (빌 2:17-18)**

-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대했던 바울은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를 생각했습니다. 그가 처형당한다면 자신을 하나님께 부어 바치는 “전제”에 비유했습니다 (빌 2:17).
- 전제는 희생 제물위에 기름이나 음료를 붓는 것으로 (출 29:39-40), 바울의 비유에서 희생제물은 빌립보 교인들을 상징했습니다.
-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희생제물처럼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? 아닙니다. 여기서 희생은 그들의 “믿음의 봉사,” 즉 희생을 실천하는 삶을 말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인 것입니다 (롬 12:1).
-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.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만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, 자신의 순교가 그들에게 더욱 큰 용기를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.

B 세상의 빛이 된 사람들:

❖ **디모데 (빌 2:19-24)**

- 디모데는 바울을 열심히 도왔을 뿐 아니라 바울의 여섯 편의 서신들, 즉 고린도후서, 빌립보서, 골로새서, 데살로니가전서, 데살로니가후서, 빌레몬서의 공동 저자였습니다. 바울은 직접 디모데를 전도자로 선택했습니다 (행 16:1-3). 바울은 이 젊은이에게서 어떤 특별한 성품을 보았을까요?
- 우선,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를 “칭찬했습니다.” 바울은 그가 전도자의 자격이 있음을 예언했고 (딤후 1:18), 어린 그를 아들처럼 생각했고 (딤후 1:2; 4:12), 디모데 또한 바울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(빌 2:22).
-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처럼 유능한 전도자로 생각했습니다 (고전 6:10). 그는 디모데에게 고린도 (고전 4:17), 빌립보 (빌 2:19), 데살로니가 (살전 3:2) 등 여러 교회들을 지도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. 디모데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(히 13:23).

❖ **에바브로디도 (빌 2:25-30)**

-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그에게 필요한 방세, 식비, 겨울 옷 등을 위해 모금했고,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해 그 선물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(빌 4:18; 2:25). (당시 죄수가 비용을 지불함).
- 에바브로디도는 그 선물들을 전달했을 뿐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며 같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.
-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하던 에바브로디도는 결국 생명을 위협할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(빌 2:27, 30). 빌립보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를 걱정했습니다. 이를 안 바울은 그에게 자신의 편지서를 주어 빌립보 교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(빌 2:26, 28).
- 바울은 “그와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”라고 권면합니다 (빌 2:29). 에바브로디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충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.